

♥ 아내

TV를 켜면, 거리에 나가면 놀라운 몸매의 미인들 넘쳐 나지만
당신의 아내의 넉넉한 뱃살은 헬스클럽에 등록하느니
남편 보약 한첩, 애들 먹거리 하나 더 사들이는
아내의 넉넉한 마음입니다.

직장에도.. 대학에도.. 국회에도.. 똑똑하고 지적인 여인들의 목소리
넘쳐 나지만 당신 아내의 넘치는 잔소리는 깨끗한집, 반듯한 아이들,
건강한 당신을 위한 아내의 사랑의 외침 입니다.

멋진 썬그라스에 폼나게 운전대 잡은 도로의 사모님들 넘쳐 나지만
당신의 아내가 버스의 빈자리를 보고 달려가 앉는 건 집안일에,
아이들 등상에, 남편 뒷바라지, 지친 일상에 지린 육체를 잠시 기대어 쉴
쉼터가 필요한 까닭 입니다.

결혼전에는 새 모이만큼 먹더니 요즘은 머슴밥 같이 먹어대는 아내
당신의 아내가 아이들이 남간밥, 접시 귀퉁이의 반찬까지 먹여치우는 것은
당신의 늦은 귀가로 밀려 돌아가는 식은밥, 남은 반찬의 음식쓰레기 처리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모처럼의 가족 나들이에 세련된 화장, 멋진 옷차림을 바랐지만
당신의 아내가 편한 고무줄 바지에 혈령한 티셔츠에, 굽 낮은 구두를 신고
나서는 것은 사랑스런 당신의 아이들을 더 잘 돌보려는 엄마의 소중한
마음 입니다.

꿈 많고, 아름답고, 날씬하고, 건강했던 당신의 그녀가
아무런 꿈도 없이, 생각도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보통 아줌마가 되어버린 것은 당신에게 그녀의 일생을 걸었기 때문 입니다.
그녀의 꿈이 바로 당신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가씨 때의 당당함은 어디로 갔는지 "자기, 날 사랑해, 사랑하긴 하냐구"
귀찮도록 따라 다니며 물어대는 당신의 아내 그녀에게 필요한것은 아무런 느낌없이
아내이기 때문에 던져지는 키스와 포옹이 아니라
가슴 가득 안은 사랑을 사무치도록 전하는 그런 포옹입니다



<p>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p>	<p>예수님 안에 담이 있습니다(빌4:13)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p>	<p>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섬김과봉사 *의명성-명예</p>
<p>제 9권 24호</p>	<p>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p>	<p>2007년6월17일</p>
<p>☎ 369-5077 Howe St. City (Auckland Girls Grammar School Hall) www.calvary.org.nz</p>		

◀하나님! 나의 하나님▶

十 약점의 선배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아내를 두 번이나
팔아먹었고, 이삭은 순종적이고 착하기는 하지만 제 아버지가 한대로 아내를
팔아먹는 짓 되풀이 했으며, 우물 몇 개 팠던 것 외에는 특별히 뭘 내세울게
안 보이고, 야곱은 바지런하기는 했지만 욕심많은 거짓말장이에 사기꾼적 기질도
다분했다. 레아는 질투만 많았지 예쁘지도 않고 총기도 별로 없는 여성이었고,
라헬은 이쁘긴 했지만 죽기 직전까지도 우상 드라빔을 품고 있었던 믿음이
의심스런 여자였고,
요셉은 성실하고 순전했지만 입조심을 못해 왕따 당한 아픔이 있으며,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사귀었고 세상에서 가장 은유한 자였지만, 그전엔 한 성깔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광야로 뺩소니쳤던 도망자였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벌한 용장이었지만, 모세와는 달리 후계자 문제에 신경을 쓰지 못해서 그의
사후에 영적 암흑기를 초래하고 만 안타까움이 떠나지 않는다.

아론은 지도자라 하면서도 금송아지 숭배의 어처구니없는 일에 앞장섰고, 발
각났을 땐 그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시키기도 한 비겁한 사람이었다. 삼손은
힘은 셧지만 머리는 별로였던 것 같았고, 평생 여자문제로 시끄럽다가 결국
여자때문에 치명타를 맞고 만 절제되지 못한 인물이었으며,
사울은 아무런 노력없이 왕이 되는 대박을 터뜨렸으나, 준수한 외모와는 달리
시기와 질투 속에서 평생을 허겁지겁 쫓기며 왕답지 못하게 체통 구기며 살았
고, 다윗은 탁월한 인격에도 불구하고 간음죄를 지었으며 그것을 은폐하기 위
해 더 무서운 살인까지 하였는가 하면, 자식교육 또한 실패하여 아들 때문에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솔로몬은 지혜와 총명이 탁월했지만, 넘치는 부귀와
영화를 주체치 못했으며, 복잡한 여자 관계와 우상숭배에서 평생 벗어나지를
못한 까닭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대에 가서는 결국 나라가 쪼개지고 말았다.

이렇듯,
믿음의 선조들, 그들 모두는 하나같이 약점들을 가진 ,약점의 선배들이었다.
강점이 있는 만큼 갖가지의 약점들을 또한 가지고 있었고, 그 때문에 또 적지
않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고 변화시키셔서
끝내는 멋진 사역자를 만들어 쓰셨다.

원래부터 완전치 않았던 사람들,
도무지 완전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던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다듬고 훈련시켜서 멋진 걸작품으로 만들어가신 분이시다.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주일 예배 찬양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다 갈 이
*찬 송 Hymn	14 장	다 갈 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21 (시편 95)	다 갈 이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인 도 자
찬 송 Hymn	188 장	다 갈 이
기 도 Pray		최 재학 장로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창세기 15:1- 7	인 도 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 성가대
설 교 Sermon	“두려움을 극복하라”	이 태한 목사
찬 송 Hymn	502 장	다 갈 이
헌 금 기 도 Offering Pray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여기에 모인 우리	다 갈 이
축 도 Benediction		이 태한 목사

성전건축헌금 지난주일: \$ 1,021	총액: \$ 316,965.70
-----------------------	-------------------

◆6월 예배위원◆

◆6월의 교회력◆

일자	기도	응답송	안 내
3	조용건		본당:권사
10	최득수		
17	최재학		현관 : 장현중 정덕수 새교우:이광희 이근평
24	현석호		윤주야 장유진
01	고성일		

주 일	예배와 모임
3	구역예배
10	
17	여성교회 월례회
24	남성교회 월례회.

『교회 생활』 2007 신앙생활 : 하루에 7분기도하기 매일 가족위해 5분 매일 교회위해 1분 매일 남을 위해 1분	『교회 등록』 *3주간 예배, 친교 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 그래야 신중하고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아동, 학생: 오후 1시 수요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금 5:50 청년부: 수요일 7:00

* 등록을 원하시는 새 교우는 예배후 새 가족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 창립 8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교인 체육대회개최
*일시 : 2007년 7월 15일 오후 1시
*장소 : 학교 체육관 (현재 학생부 예배장소)
*주관 : 제4 남선교회
(상세사항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 수요예배 : <수요일 저녁 7:30>
*예전엔 수요예배를 삼일예배라고도 하였습니다. 주일 후 3일째 모인다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주일예배로는 한주간의 삶이 탄탄치 않아 삼일째 말씀으로 힘을 얻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 교회주변이 공사 관계로 많이 복잡합니다. 특히 안전사고에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5 남선교회 골프모임 안내
*일시 : 2007년 7월 3일 (화) 12:00
*장소 : 마누카우 골프장
*문의 : 박상옥, 백제성 집사
-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좌석은 가급적 앞자리와 가운데 부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착한 시인들 ▶

한번쯤 다시 살아볼 수 있다면

-김 재진-

한번쯤 다시 살아볼 수 있다면
그때 그 용서 할 수 없던 일들
용서 할 수 있으리
자존심만 내세우다 돌아서고 말던
미숙한 첫 사랑도 이해 할 수 있으리
모란이 지고 나면 장미가 피듯
삶에는 저마다 제철이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찬물처럼 들이키리

한번쯤 다시 살아볼 수 있다면
나로 인해 상처 받은 누군가를 향해
미안하단 말 한마디
건넬 수 있으리

살면서 안타까움을 가지게 되는 경우는
“다시한번”의 기회를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역전의 기회를 잃어버린 운동선수, 젊은이를 부러운듯 바라보는 노인의 모습..
어쩌면 우리도 가슴치며 후회할 아름다운 만남을 벽으로 막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살아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후회 없이 보내기 위해선 지금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서 안아주는 따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